

# 현대의 건축공간에 나타난 비결정적 프로그램의 특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Indeterminate Program in Contemporary Architecture

김윤정\* / Kim, Yun-Jung

박찬일\*\* / Park, Chan-Il

### Abstract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indeterminacy of the contemporary social structure based on the philosophical concept of relationship. The indeterminate relationship is one of the prominent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indeterminate programs of the contemporary urban spatial structures. By tracing this new characteristics of new architectural trend, the spatial situations of could be understood in light of new conceptual frame as well as some relevant architectural project cases.

키워드 : 프로그램, 비결정성, 관계성, 시간, 이벤트, 어포던스

Keywords : program, indeterminate, relationship, time, event, affordance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 건축은 수많은 건축가가 각기 나름대로의 방법에 따라 독특하고 다양한 건축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플라톤 이후부터 데카르트에 이르기까지 존재했던 완벽한 '이상'이라는 것에 대한 견해가 이제는 '결정불가능한 것'으로 바뀌어왔고, 사고의 관점이 대상에서 관계들로, 더 나아가서는 관계들의 차이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유체계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과학기술의 놀라운 발달 과 함께 현대의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시대의 이들의 작업방법을 분석하려는 시도는 진행되는 다양한 변화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그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지금의 우리시대가 필요로 하는 공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에 도움을 주며 앞으로 이루어져 나갈 공간디자인의 방향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철학적 기반에서의 관계성 개념의 변화에 근거를 두고, 현대사회의 관계구조가 현대건축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현대건축의 관계구조의 특성이 그 구조의 내부구성논리인 프로그램의 특성에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건축 공간구성의 방법론으로써 프로그램의 비결정적 특성을 명확히 규명하여 제시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구조주의적 관계성과 후기구조주의적 관계성의 개념의 변화를 고찰하여 현대사회의 관계구조의 특성으로 결정불가능성을 밝히고, 이를 근거로 현대건축의 관계구조의 특성을 찾아내었다. 또한, 건축의 관계구조의 특성은 그 구조의 내부구성논리인 프로그램에 반영된다는 것을 전제하여, 현대건축의 비결정적 프로그램의 개념을 살펴보고, 그 특성을 분석의 틀로 제시하였다. 여기서 제시된 분석의 틀을 이용하여 건축의 프로세스에 프로그램이 주요개념으로 도입된 1990년대 이후의 현대건축을 중심 대상으로 분석하여 비결정적 프로그램의 특성을 분석 정리하였다.

## 2. 공간에서의 관계성 변화에 대한 고찰

### 2.1 관계성의 이론적 고찰

#### (1) 관계성의 개념

관계라는 것은 여러 개의 항이 모이면 성립되었다가 흩어지면 없어지는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관계가 먼저 존재하고 개별자들이 그 항을 채운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전자는 개별자, 개별자의 내면, 의식으로부터 출발해서 관계를 구성해나가는 실존주의적 사유라고 한다면, 후자는 구조주의적 사유로 개별자들이 문화를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에서 관계들의 체계를 발견한 것이다. 그러나 모두 고정적 근원, 원리를 전제한다는 한계를 갖는 것은 공통된다.<sup>1)</sup> 한편, 후

1) 이정우, 철학이란 무엇인가, 디지털문화예술아카데미.

\* 정회원, 건국대학교 실내건축설계학과 석사과정

\*\* 정회원, 건국대학교 실내건축설계학과 조교수

기구조주의는 구조주의를 일정부분 받아드리면서도, 관계들의 체계를 고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접속과 이탈, 영토화와 탈영토화를 통해서 관계의 체계가 끝없이 만들어지고 해체되어 가는 과정을 사유하는 것이다.

### (2) 구조주의적 관계성

구조주의는 객관적인 구조 속에서 인간의 모든 행위가 성립되며, 그 배후와 의미의 결정 등은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불가사의의 객관적 구조'라고 보는 새로운 인식태도로써<sup>2)</sup> 합리주의이다. 구조언어학에서는 어떤 개별항도 그것을 둘러싼 관계속에서 그 의미가 결정된다는 식의 관계성을 강조한다.<sup>3)</sup> 그러나 보편성과 필연성의 질서로 각각의 사건이 갖는 차이, 각각의 문화가 갖는 고유함을 환원한다.<sup>4)</sup> 이러한 구조주의적 관점에서의 관계성의 개념은 인과성과 합리성에 의해 설명되어지며, 필연성과 결정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구조주의는 극단적 합리주의, 결정론적 관점에서 질서정연한 구조로 들어오지 않는 부분을 절단하는 한계를 보였다. 즉, 이론적 질서나 구조의 틀로 제한되지 않는 관계들의 복잡한 짜임과 역동적 운동, 산발적 효과들을 놓치고 있다.<sup>5)</sup>

### (3) 후기구조주의적 관계성

후기구조주의적 관계성은 복합적이고 결정 불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다. 후기구조주의도 모든 것을 관계 속에서 포착하지만, 구조주의처럼 관계들의 동형성을 찾으려 하지 않으며, 오히려 동형성으로 귀속되지 않는 '차이'를 사유하려고 한다. 따라서 관계들의 다양성 자체도 조그마한 변형 하나만으로도 또 다른 다양체로 변이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데리다는 기호의 의미는 항상 연기되거나 달라져있다고 하는 '차연(差延)'의 개념을 발전시켰는데, 그것은 단어는 단어들 간의 차이에 따라 정의되고, 그러한 정의는 필연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의 불확정성을 내포한다. 또한 데리다는 모든 언어는 수식과 수사를 통해서 은유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지적했다.<sup>6)</sup> 은유는 관계에 호소하며, 이러한 관계는 독자가 만드는 것이고 독자에 의해서 새롭게 이해되는 것이다. 또한, 텍스트는 상호텍스트성이라 하는 거미집 모양으로 상호교차하여 무한히 확장 가능한 망상조직(web)을 일으키면서 다른 기호만을 지시하는 해석의 관생(貫生)<sup>7)</sup>이 있어, 어떤 해석도 최종적인 것이라고 주장할 수

2) 아사다 아카라, 이정우 역, 구조주의와 포스트구조주의, 새길, 1995, pp.16~23.

3) 이진경, 구조언어학, 한겨레21, 제300호.

4) 이정우, 시뮬라르크의 시대, 거름, pp.26~36.

5) 김상환, 기표의 힘과 실재의 귀환, 철학사상 별책1권 4호,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pp.75~78.

6) 마단시럽 외, 임현규 역, 데리다와 푸코,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 인간사랑, 1999, p.39.

7) 관생(貫生, proliferation) - 꽃 및 대부분의 꽃차례는 보통 줄기의 끝이 성장을 멈춘 유한한 구조인데, 어떤 자극에 의하여 끝부분에 잠재하고 있던 생장점이 활성화되거나 또는 부정아(不定芽)가 생기면서 다시 줄기가 자라 꽃차례 또는 꽃이 반복하여 피거나 가지로 되돌아가는 현상.

없는 결정불가능성이 있다. 즉, 해체는 저자보다는 독자에 가치를 두며 은유에 의한 상호텍스트성으로 향하게 한다.

<표 1> 관계 구조의 특성 도출

	구조주의적 관계성	후기구조주의적 관계성
개념	결정된 합리적 관계구조	결정불가능한 관계구조
특성	인과성, 합리성, 필연성, 결정성, 보편성, 객관성, 고유성	복잡성, 역동성, 다양성, 모호성, 우연성, 차연성, 산발성, 주관성

## 2.2. 건축에서의 관계성

### (1) 구조주의적 관계성

역사적 양식으로부터 단절한 모더니즘은 '기능주의'라는 새로운 건축이론을 체계화시키며 합리성과 유토피아적 이념을 토대로 건축에 있어 구조주의적 관계성을 구축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내외부의 관계성과,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기능과 형태의 의존적 관계성, 구조의 솔직한 표현등은 합리적인 관계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후, 근대의 기능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포스트모더니즘은 구조외적 관계성을 포함하는 영역으로 넓어지게 되었다. 로버트 벤츄리는 복합성과 대립성의 개념을 단순성과 회화성과 대조하여, 라이트나 꼬르뷔제가 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단순형태'를 중시하고, 애매함을 피하고 있지만, 현재는 기능에 관한 과제가 더욱 복잡화 되어 온 것을 인식하고 단순화 되거나 겉으로만 다양화된 건물이 아니라 시각적 애매함에 따르는 변화가 건축에 재인식되고 수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8)</sup> 그러나 벤츄리의 개념은 구조주의적 시각에서 텍스트의 완결성을 위한 모순요소와 애매한 요소들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고, 빈센트 스컬리의 '의미와 형태는 분리할 수 없다'<sup>9)</sup>는 말은 지나치게 관계 구조를 통하여 의미를 찾는 작업으로 구조주의적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 후기구조주의적 관계성

현대 건축은 건축에 있어 결정불가능성을 수용하여 인과관계 영역밖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본다.<sup>10)</sup> 제프리 키프니스는 1993년 AD에서 출간된 'Folding in Architecture'의 'Toward a New Architecture'에서 현대건축을 이해하기 위한 틀로서 <표 1>과 같이 3그룹의 건축적 범주를 제안하였다. 여기서 인포메이션은 프로그램적 관계에, 디포메이션은 구축적 형태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후 그는 건축에서 결정불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고 관계의 분리불가능성으로서 '세퍼라트릭스 비틀어보기'를 제시하였다.<sup>11)</sup> 또 다른 건축가이자 이

8) Robert Venturi 저, 임창복 역, 建築의 複合性과 對立性, 기문당, 2000, pp.32~38.

9) Ibid, p.20.

10) 천의영, 1980년대 中期 以後 現代建築의 關係性의 繁華에 대한 研究, 서울대 박.논, 1998, pp.37~38.

11) 제프리 키프니스, Architecture theory since 1968, 봉일법 역, 시공문화사, 2003, pp.950~958

<표 2> 제프리 키프니스가 분류한 건축적 범주

	recombination 건축가	deformation 건축가	information 건축가
주요개념	역사적 탐구와 재해석에 의한 콜라주	도상들의 조작을 통해 구축적형태의 형성	이벤트의 다이어그램을 통한 프로그램의 재구축
주요 건축가	Henri Ciriani A. M. Stern Leon Krier	Peter Eisenman Frank Gehry	Rem Koolhaas Toyo Ito Bernard Tschu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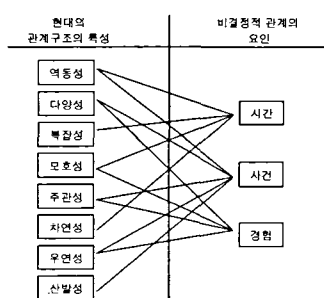
론가인 알레한드로 자에라 폴로는 엘크로키에 기재한 에세이<sup>12)</sup>에서 최근의 건축의 다양한 현상들의 단면을 5가지의 대극되는 개념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그는 시간에 대한 인과관계를 부정하며, 무작위적인 우연성 속에 인과관계에 대한 가능성의 원인조차 분해한다. 또한, 시간과 이벤트 등을 비결정성의 주요 요소로 도입하여 관계성의 비결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자에라 폴로의 현대건축 유형의 범주

현대건축의 유형	
힘	잠재력
결정	비결정
기법	효과
표현주의	기계성
통합	차별화

이러한 현대 건축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관계의 비결정성에는 '건축의 영역에 인간성을 다시 회복해야한다'는 신념이 깔려있다. 다시 말해, 작가-작품-독자의 관계론적 층위에서 건축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개념으로 독자가 비결정성의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즉, 공간에서 사용자 행위의 예측불가능한 부분을 수용하여 사용자에게 결정된 것의 외적인 부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사용자 개개인의 시간, 사건, 경험에 따라 공간에서의 체험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공간 관계의 비결정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표4>는 앞에서 도출한 후기구조주의적 관계성의 특성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현대 건축의 관계구조는 그 구조의 내부 구성논리인 프로그램에 의해 나타나며, 그 특성 역시 프로그램의 특성에 반영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비결정적 프로그램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표 4> 비결정적 관계의 요소



### 3. 비결정적 프로그램의 특성

#### 3.1. 비결정적 프로그램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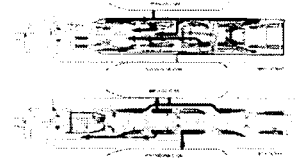
비결정적 프로그램의 개념은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요인들과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개념으로 상정한다. 램 콜하스는 프로그램의 비결정성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정신착란증의 뉴욕에서 일련의 조사를 시작하면서 대도시 문화의 특성으로 불확정성을 명시하고 있다. 램 콜하스는 형태가 프로그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프로그램과 인간의 행위는 예측불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의해 완전히 결정되는 건축을 거부한다.<sup>13)</sup> 이는 공간의 의미가 절대적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닌 그 속에서의 인간행위와 관계를 통해 상대적으로 얻어진다는 후기구조주의적 관계성의 개념과 연관되어진다.

#### 3.2. 비결정적 프로그램의 분석

##### (1) 시간성의 수용

오늘날의 건축공간은 도시 내 사람들의 활동과 흐름, 물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바탕이 요구되어짐에 따라 시간에 따른 예측불가능성을 수용할 수 있어야한다는 새로운 명제가 대두되어지고 있다. 그것은 개인의 행위의 변화와 주관적 경험에 의한 것이며, 사건과 관련된 동시성, 사람, 생각, 사물의 이동과 행위의 중첩에 따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프로그램이나 사람의 이용, 양상, 변화 등에 대한 연구가 중요해지며 이러한 것은 시간에 따른 공간의 점유 양상 변화를 파악하게 해 준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간 점유와 사람들의 이동에 의한 행위의 변화는 공간프로그램의 변화를 요구하며 각 공간은 그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FOA의 <요코하마 국제 여객 터미널>은 교통시설이라는 측면으로 인해 시간에 따른 변화의 수용을 요구하게 된다. 예를 들어, 국내, 국외 운송 선박의 크기와 스케줄의 변화에 따른 요구 공간의 크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즉 공간 사이의 경계를 이동시킬 수 있는 구조를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 이는 갖가지 변화가 가능한 구조로, 어떠한 가상의 상황에도 대처할 수



<그림 1>요코하마 국제 여객 터미널 흐름도, FOA

있는 지속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sup>14)</sup> 또한 옥상 정원은 도시민을 위한 공원, 전망대, 송별의 장소등의 프로그램이 중첩될 수 있도록 랜드 스케이프를 집복시킨, 표면 자체가 겹겹이나 구부러져서 새로운 요소와 구조가 주입된 연속된 공간구성을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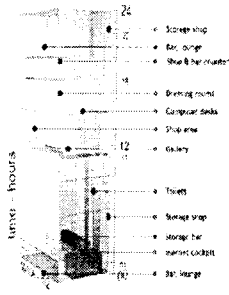
12)Alejandro Zaera- Polo, A world of full of holrs, El Croquis 97, pp.30 8~321.

13)한선정, '해체주의 이후' 아방가르드 건축의 특성과 성격 규명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론, pp.32~35.

14)FOA, Phylogenesis, Actar, 2003, pp.227~237.

안하고 있다.

유엔 스튜디오의 <Skim.com계획>은 24시간 활동을 나타내는 지도를 통하여 다양한 서비스들의 융합을 보여준다.<sup>15)</sup> 공간은 낮 시간에는 구매 활동에 집중되는 반면, 저녁에는 사회적 활동에 할애되고, 커뮤니케이션 시설은 언제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활동의 동시성, 기반시설의 공유, 경계의 가변적 이동을 통해 동일한 영역에서 시간에 따른 공간 활용이 가능하며, 필요한 저장 공간을 확보하면서 소규모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2> 24시간 프로그램 지도, UN Studio

램 콜하스의 <시애틀 중앙도서관><sup>16)</sup>은 연속적인 공간구성과 애매한 층의 구분이 수직적인 연속성을 갖으며, 공간의 시퀀스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보여준다. 또한 기존의 층들의 중첩을 근본적으로 변형하여, 솔리드와 보이드의 역동적 기능적 결합이 창의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통해 연속적인 시선의 흐름과 겹쳐진 공간을 통한 역동적인 공간 체험이 이루어진다.



<그림 3> 시애틀도서관의 북스파이럴 내부시각의 역동적 연속성

SHoP의 <한길 북하우스>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계획되었다. 한 곳은 3층 높이의 벽과 램프로 된 수직적인 바와 언덕이 이어져 책을 읽을 수 있는 옥외 공간을 포함하고, 다른 한곳은 레스토랑, 퍼포먼스, 전시공간에서 광장 역할을 하는 커다란 홀로 구성했다. 이로 인해 동선의 유동적인 통로가 만들어지고 흐름이 전환되는 지점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외부 풍경까지 연속하여 경험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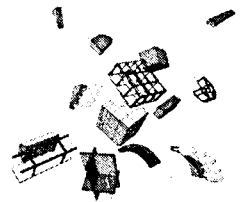
<그림 4> 한길 북하우스의 계획 스케치, SHoP

## (2) 사건의 수용

프로그램에서의 사건의 수용은 베르나르 추미가 말한 이벤트 프로그램이다. 이벤트는 근대 건축의 영역에서는 배제된 인간 생활의 부분에 주목한 것이며, '행위'를 주요한 주제로 부각하여 인간의 행위라는 측면에서 프로그램을 해석하려는 것이다. 이벤트 프로그램의 개념은 서로 다른 영역인 공간, 운동, 이벤트의 치환작용을 통해 새롭게 예상치 못한 행위를 유발시키는 것이다. 이벤트의 속성은 순간에 존재하는 독립체로서 시간과 공간에 따른 변화가능성을 지니며, 오브제와 사람, 이벤트 간의 치환작용을 통한 상호 호환성을 갖는다.<sup>17)</sup> 이는 인간의 일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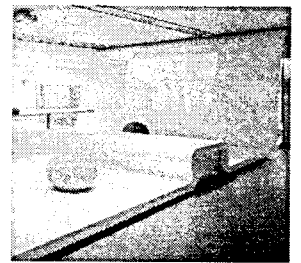
인 행위 즉, 이벤트를 수용하는 프로그램은 결정불가능성을 지닌다는 것을 증명한다.

베르나르 추미는 <라 빌레르 공원, 1982-1998>에서 행위를 주제로 부각시키면서 해체되어 분리된 행위 즉, 이벤트를 구체화 시키며, '점적인 행위', '선적인 행위' 및 '면적인 행위'로 프로그램을 분류한다.<sup>18)</sup> '점들'은 그리드 패턴 위에 배열된 폴리곤으로 나타나고, 일련의 통로들과 운하들은 '선들'의 네트워크를 이루며, 또 평탄한 잔디의 확장은 구성에 있어서 '면들'을 이룬다. 따라서 라 빌레르 공원의 구성은 단순한 형태적 유희가 아니라 3개의 자율적인 추상적 시스템과 포인트 그리드라는 격자의 질서 속에서 자유로운 움직임의 요소들을 병치한 결과이다.<sup>19)</sup> 특히, 폴리는 공원에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수용하며, 단편적인 상황들의 치환을 통한 재조합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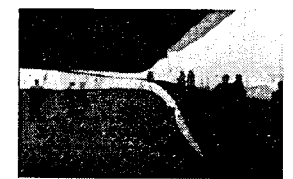


<그림 5> 해체된 폴리

KDa의 <비콘 커뮤니케이션즈><sup>20)</sup>는 리본(ribbon)이라 명명된 연속체가 동선을 따라 상하로 부드럽게 움직이며, 다목적의 공용공간을 형성한다. 이 공간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며, 창조적인 태도를 고양시키는 역동적인 무대로서, 광고 회사라는 업무의 특성상 다양한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을 생성하는 장소가 되고 있다.



<그림 6> KDa 'Community floor' slab



<그림 7> 상파울로 현대미술관의 동선에 의한 갤러리 경사로의 구성과 투명성에 의한 도시와 건축의 반응

베르나르 추미의 <상파울로 현대 미술관>은 예술과 도시의 경험들이 전례 없는 방식으로 서로 얽히게 되면서 미술과 도시를 상호 작용하도록 하기 위해 전시 공간에 대한 프로그램의 재해석을 갤러리 경사도로 나타내었고, 그 갤러리 경사도를 따른 움직임은 파사드의 유리층을 통해서 외부에서도 인지하게 된다. 동선은 일련의 경사도를 따라 중앙 갤러리를 중심으로 아래로 이어지며 갤러리들을 통과하며 걸어 내려가게 되어있다.<sup>21)</sup> 이 현대 미술관에서 중요한 것은 경사도가 확장되어 갤러리에 전시되는 작품과 거리의 문화작품들 간의 상호 정보적인 대화를 가능하게 해 준다는 점이다. 즉, 경사도라는 통로의 개념을 확장시켜 소장품과 관람자, 관람자와

15)벤 반 버클, Love it. Live it, DAMDI, p.138.

16)건축문화, 2005.09, pp.94~129.

17)Beranrd Tschumi, Madness and the Combinative, 1994, p.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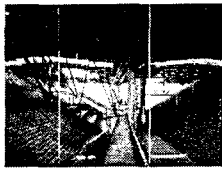
18)ibid., p.57.

19)김성호, 수용미학과 현대건축, 시공문화사, 2003, p.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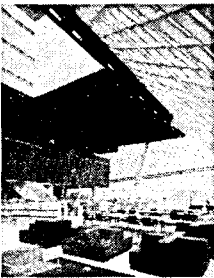
20)Frame 28, 2002, pp.90~99.

21)윤정원, '흐름'을 통해 '도시의 건축화'를 조직하는 체계와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론, 2004, pp.41~42.

도시 사이의 물리적 중재 역할을 하며 또 다른 전시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제공한다. 공공장소에 대한 인식은 사용자의 움직임과 이벤트 경험에 대한 시스템으로부터 시작되고 그것은 통로 공간의 구축을 통해 실현된다. <라 프레노아, 1994-1997>는 사이 공간이 작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된 작품이다. 기존에 존재하는 건물위에 전자지붕을 씌워서 생긴 사이공간에 기존의 건물 매스들을 연결하는 운동장치가 관통하고 있다. 그 사이 공간은 트러스의 비물질화된 구조와 결합하여 마치 이벤트를 상연하는 무대의 가능성을 제안<sup>22)</sup>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거대한 지붕은 그 아래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공간적 상황을 만들고, 도입된 통로를 통한 이동을 발생시켜 공간의 관계성을 활성화 하기위한 장치로 사용되었다.



<그림 8> 라 프레노아의 사이공간. 베르나르 추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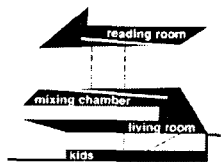


<그림 9> 시애틀도서관의 largest public space

램 폴하스의 <시애틀 중앙도서관><sup>23)</sup>은 5개의 고정공간과 4개의 가변공간이라는 클러스터들로 프로그램을 나누었다. 각각의 플랫폼들은 고유한 목적을 위해서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크기, 유연성, 색채, 구조, 순환성은 모두 다르도록 하였고, 플랫폼들 간의 사이공간은 도서관 업무, 상호 의사소통과 휴게공간으로 기능을 부여하였다. 또한, 여러 기능을 수용하는 오픈된 공간을 구성하여 다양한 이용자들 간의 자유로운 상호관계를 유도하였고, 내부 직원과 이용자들이 최대한 상호 접촉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위해 믹싱챔버를 구성하여, 공간과 이용자들이 서로 얽히며 계속된 새로운 경험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였다.



<그림 10> 5개의 고정공간-Platforms



<그림 11> 4개의 가변공간-In Betweens

### (3) 경험의수용

사용자의 경험이 프로그램에 반영되는 것은 어포던스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어포던스는 생태심리학자 제임스 김슨이 만든 용어로서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의 성질’이라고 정의된다. 김슨은 정보는 이미 우리들의 주변에 충만해 있고 환경에는 그 자체에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진 정보가 자연스럽게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으로부터 받은 자극을

머릿속에서 정보로 가공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정보를 직접 자연스럽게 입수하는 활동이라고 하였다.<sup>24)</sup> 또, “상용적 디자인 (Interaction Design)의 틀 안에서의 어포던스란 어떤 물체의 형태가 사용자에게 잠재적으로 제공하고, 허용하는 사용상의 유용성이다.”<sup>25)</sup> 라고 하였다. 그는 어떤 물체가 사용자에게 그 물체에 대한 여러 가지 사용행위들을 가능케 하는, 물체와 사용자가 참여하는 물리적인 관계로서 어포던스를 이해하고 있다. 즉 어포던스의 공간개념은 사용자 중심의 참여성과 행위 유발성의 특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카림 라쉬드가 계획한 록본기 힐스 가로의 도시 이용자를 위한 설치물은 기존의 가로벤치의 개념을 넘어 사용자에 따라 다양한 행위를 지원할 수 있는 개념의 벤치라고 할 수 있다. 이 벤치는 고정된 벤치의 형태를 벗어난 유연한 구조와 형태를 가지므로 도시 가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와 경험을 창출하고 지원하여 가로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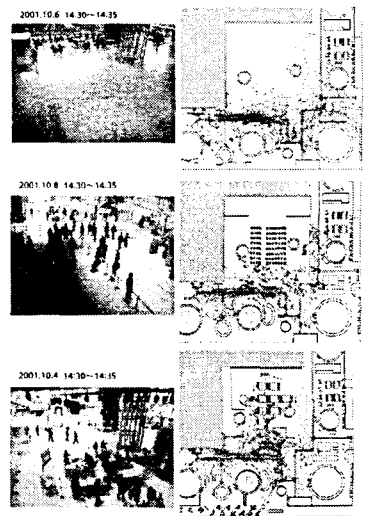


<그림 12> 카림 라쉬드, Tokyo



<그림 13>센다이미디어테크, Toyo Ito

이토도요의 <센다이 미디어테크>의 의자 역시 유연한 형태의 구조와 높이의 변화로 다양한 행위를 유도하고 있다. 이는 인간과 환경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환경장치를 통해 개인의 성향에 따른 다양한 해석과 상징성으로 즐거움을 배가시킨다는 일종의 조건반사적 공간체험을 발생시키게 되는 것이다.<sup>26)</sup> 또한, 어포드된 정보가 달라짐에 따라 공간에서의 움직임이 달라지는데 이러한 변화에 유연



<그림 14> 센다이 미디어테크의 이벤트에 의한 어포던스

하게 대응하기위해서 공간을 분할하는 구조적 경계요소 최소화하고 있다. 그 자연스러움은 단지 플렉시블이라는 개념뿐만 아니라, 변화 자신이 미디어테크의 환경 특성이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메타레벨의 어트랙터가 공간상에 존재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사람의 체류는 움직임 중의 일면이며, 흐름의

24)김영호, 제품디자인에 있어서 점유성의 재해석과 그 적용, 중앙대 박문, 2004, pp.16~17.

25)J.J.Gibson, The Ecological Approach to Visual Perception, Boston : Houghton Mifflin Co., p.127, 1979.

26)이미경, 테마파크 환경연출기법에 있어서 감성디자인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03.

22)Berand Tschumi, Event - Cities.

23)건축문화, 2005.09, pp.94~129.

연속으로 어포던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환경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조정해 나가는 행위이다. <그림 14>는 1층 로비공간의 어떤 날의 5분간의 유동 패턴을 나타낸 것이다. 로비의 프로그램이 변화됨에 따라 사람들의 유동 패턴이 변화하며 빠른 속도의 패턴 주위에 거품처럼 나타나는 늦은 패턴의 대비가 보인다. 이러한 거품의 형성은 커다란 동선의 방향이 전환되어짐에 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튜브나 아트랙터가 되는 가구의 근방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이 관찰된다. 이렇듯 이벤트에 의해서 사용자의 유동 패턴이 달라지며 그에 따른 어포던스의 지각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5> 비결정적 프로그램의 특성

비결정적 프로그램의 개념	사례	비결정적 프로그램의 특성	
시간	요코하마 국제 여객 터미널 / FOA	공간 점유의 다변화	동일한 공간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공간의 사용패턴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이는 특정의 공간이 공식적으로 다양한 행위를 수용하거나, 시간의 변화에 따라 공간 사용의 유형이 바뀌기도 한다는 것이다. 즉, 시간에 의한 프로그램의 혼성의 개념이다.
	Skim.com/계획 /UN Studio		
	시애틀 중앙도서관 /Rem Koolhaas	연속적 시간 체험	주체와 객체 사이의, 형상과 배경 사이의, 관찰자와 이벤트 사이의 연속성이라는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은 장에 삽입되는 시간의 차원이다. 공간에서 보여지는 사건의 중심 또는 위상사건의 위계는 특정한 시퀀스에 의해 좌우되며, 사건 자체는 스스로 변형을 기할 수 없다. 즉, 공간의 지극은 관찰자의 운동에 의해 전개되며 그 인식은 예측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공간의 경험은 역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길 북하우스 /ShoP		
이벤트	라 빌레트 공원 /Berand Tschumi	자유로운 흐름의 구축	건축 공간에 생성된 예측불가능한 일시적인 사건들이 조합된 프로그램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에 의해 파편화된 이벤트로 나타나는 일시적인 프로그램이다. 이것은 사용자들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유도하며 건축 공간에 비일상적이거나 예측 불가능한 이벤트를 생성시킨다.
	비콘 커뮤니케이션즈 /KDa		
	상파울로 현대미술관 /Berand Tschumi	동선 공간의 확장	사용자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동선공간의 확장으로 자연스러운 이벤트가 생성된다. 또한 공간과 움직임, 이벤트의 상호관계가 형성되는 새로운 장소로서 다목적의 공용공간으로 형성되어지기도 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재해석되어진다.
	라 프레노아 /Berand Tschumi		
시애틀 중앙도서관 /Rem Koolhaas	사이 공간의 삽입	프로그램들을 그 특성에 따라 분리하여 프로그램의 따로 조합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여, 프로그램의 틈을 그 연결이 필요한 지점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병치함으로써 '사이 공간(in-between space)'을 만들어 내고 있다. 사이 공간은 최대한의 운동성을 가질 수 있는 열린 공간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시애틀 중앙도서관 /Rem Koolhaas			
어포던스	록본기 힐스 가로벤치 /Kanin Rashid	다양한 정보의 혼입	사람들이 각각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상태에서는 가구 등의 아트랙터의 배치가 행위를 규정하는 커다란 요인이 된다. 또한 사용자에게 구조를 개조하지 않고도 많은 행위들을 지원하고, 또한 개개의 사용자와 상황에 따라 다른 정보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공간이나 가구들의 장치적 요소에 다양한 정보가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
	샌다이 미디어테크 /Toyo Ito		
	샌다이 미디어테크 /Toyo Ito	사용자와 환경의 동적관계	신체운동에서 중요한 점은 시간정보를 어떻게 지각하며, 어떻게 운동과 결합되는지이다. 환경에서 어포던스 정보가 이동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이것은 환경에 대응한 운동의 조정으로 사용자와 환경 사이의 동적 관계성을 지각하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환경은 아트랙터 뿐만 아니라 이벤트 등의 소프트웨어가 장소에 주입되어짐에 따라 크게 변화하기도 한다.

### 3.3. 비결정적 프로그램의 특성

앞 절에서는 비결정적 프로그램의 개념에 따른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상기에서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여 비결정적 프로그램의 특성을 <표 5>와 같이 도출하였다.

##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후기구조주의적 관계성의 주요 개념으로 관계의 결정불가능성을 도출하였으며, 그것이 현대건축공간의 관계구조의 특성임을 밝혔다. 또한, 이러한 특성이 건축공간의 내부구성논리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비결정적 프로그램을 시간, 사건, 경험의 수용에서의 비결정성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러한 시간, 이벤트, 어포던스를 분석의 틀로 제시하여 그 구체적인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시간을 통한 프로그램의 비결정성은 시간에 따른 공간 프로그램의 점유를 다변화시키고, 사용자의 움직임을 통한 연속적인 시각체험을 통해 표현되어진다.

(2) 이벤트를 통한 프로그램의 비결정성은 공간에서의 자유로운 흐름을 구축하고, 동선공간을 확장시켜 움직임에 의한 예측불가능한 이벤트를 창출하며, 프로그램의 사이에 간격을 두어 사이공간을 삽입함으로써 비결정성의 여지를 남겨둔다.

(3) 어포던스를 통한 프로그램의 비결정성은 다양한 정보의 혼입으로 사용자의 지원성에 결정성을 넘기며, 사용자의 움직임과 체류에 의해 변화되는 다양한 지원성은 사용자와 환경간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하는 동적인 관계들을 통해 나타난다.

이 연구가 보편적인 논리로 전개되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나, 현대건축공간의 관계구조의 변화에 따른 프로그램의 변화와 그 특성을 통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현대의 건축공간에서 요구되어지는 공간 계획을 수행하는 하나의 지표를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본다.

### 참고문헌

- 이정우, 철학이란 무엇인가, 디지털문화예술아카데미.
- 아사다 아키라, 이정우 역, 구조주의와 포스트구조주의, 새길, 1995.
- 이진경, 구조언어학, 한겨레21, 제300호.
- 이정우, 시뮬라르크의 시대, 거름.
- 김상환, 기표의 힘과 실재의 귀환, 철학사상 별책1권, 철학사상연구소.
- 마단시립외, 임현규역, 데리다와 푸코,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 인간사랑, 1999.
- 봉일범, 프로그램 다이어그램, 시공문화사, 2005.
- 김성호, 수용미학과 현대건축, 시공문화사, 2003.
- Architecture theory since 1968, 봉일범 역, 시공문화사, 2003.
- 벤 반 버클, Love it. Live it. DAMDI.
- Berand Tschumi, 건축과 해체, 류호창/서정연 공역, 2003.
- Alejandro Zaera-Polo, A world of full of holes, El Croquis 97.
- FOA, Phylogenesis, Actar, 2003.
- 윤정원, '흐름'을 통해 '도시의 건축화'를 조직하는 체계와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 2004.
- 천의영, '1980年代中期以後 現代建築의 關係性의 繁華에 대한 研究, 서울대 박사, 1998.
- 김영호, 제품디자인에 있어서 점유성의 개해석과 그 적용, 중앙대 박사, 2004.
- 이미경, 테마파크 환경연출기법에 있어서 감성디자인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 실내디자인 학회, 2003.

27) 샌포드 쿤터, Architecture theory since 1968, 봉일범 역, 시공문화사, 2003, p.811.